

보도시점 2026.6.1.(월) 14:00

배포 2026.6.1.(월) 9:00

## 고도화되는 고성능 AI 보안위협에 치밀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간 기술자문단을 가동합니다.

- AI·보안·제도분야 최고 전문성을 갖춘 민간 기술자문단 본격 출범
- ✓ ▲고성능 AI 위협 대응, ▲금융권 효과적 보안시스템 구축, ▲망분리 규제 완화 시 대체가능한 보안기술 등 다방면에서 정책 자문 수행
- ✓ 학계·법조계 등 총 7명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금년 12월까지 운영 계획

‘26.6.1.(월) 금융위원회는 「민간 기술자문단」을 발족하고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 관계자 등과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

「민간 기술자문단」은 지난 5월 26일 발표한 「고성능 AI 관련 금융권 보안위협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고성능 AI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보안·제도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과 정책 조언을 적시에 제공받기 위한 자문기구이다.

「민간 기술자문단」은 AI·보안·제도 분야에서 정통한 학계 및 법조계 전문가 7명(학계 4명, 법조계 3명)으로 구성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운영하되 필요시 연장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동 자문단은 ▲미토스를 포함한 최근 고성능 AI 보안위협 관련 예상 리스크, ▲금융권의 효과적인 보안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정책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AI 공격은 AI로 방어”하기 위한 5.26일 망분리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하여 ▲보안목적 AI 활용 관련 망분리 긴급완화 조치 세부방안 검토, ▲AI 테스트 과정에서의 중점 관리 사항, ▲망분리 규제 완화시 대체가능한 보안 기술, ▲보안목적 AI 테스트를 위한 금융회사의 준비상황 점검 등 금번 추진하는 정책이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금융위원회 유영준 디지털금융정책관은 “고성능 AI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분들의 조언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AI 기술 발전과 사이버 위협의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AI·보안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들의 효과적 조언을 바탕으로 금융권에서 AI 기반 보안체계를 구축하고 AX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심하게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책임자	과 장	김태훈	(02-2100-2970)
		담당자	사무관	김영준	(02-2100-2573)

